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팀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살기 좋은' 화전동

'화전여우' 유혜옥, 이인희 씨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전동은 2017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돼 살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중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해 지역을 가꿔가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본인들 손으로 한 땀 한 땀 화전동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는 유혜옥, 이인희 씨를 만나봤다.

글 서충식 사진 이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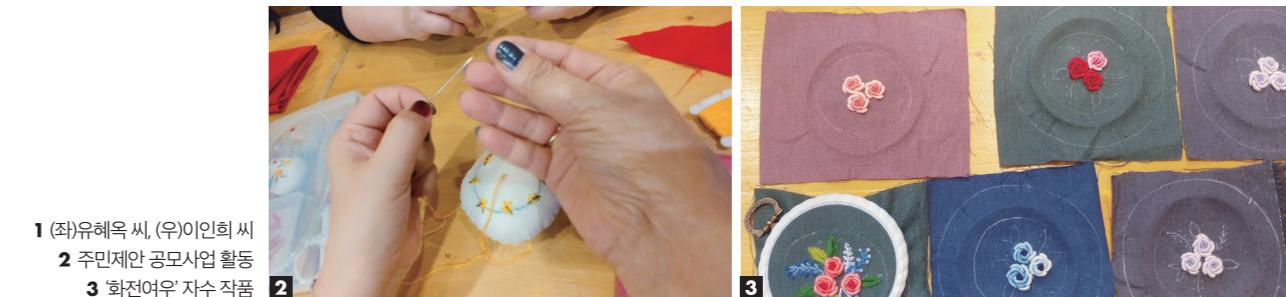


이번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2018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했었는데 주민 화합과 참여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요. 또 다시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올해는 화전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넓혀보고 싶은 생각에 신청했어요. 총 9개 팀이 선정됐고 저희는 '화전여우'라는 이름의 팀으로 활동할 예정이랍니다.

이러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화전동과 주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통해 활동을 지원해주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로 화전동의 특색과 장점을 알리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고요.



1 (좌)유혜옥 씨, (우)이인희 씨
2 주민제안 공모사업 활동
3 '화전여우' 자수 작품

주민 공모사업팀 '화전여우'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화전 여자들의 우물가'를 줄인 이름으로 주부 4명이 주축으로 자수 활동을 하는 팀이에요. 작은 공간에 여럿이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게 됐죠. 지난번에도 자수로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알게 됐고 그 덕분에 이번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어요. 화전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이 연락 줬으면 해요.

“동네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화전동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더 예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봐요!”



지난 공모사업을 통해 얻은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선 참여 주민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녀도 덩달아 관심을 갖기도 한다면서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기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자수 특강을 해달라고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개인 역량을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된 거죠.

주민 공모사업을 하면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화전동에는 노인분이 많이 살고 계세요. 할 줄 아는 것이 많으셔서 이런 도시재생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활동하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팀도 있었고 화전동 공용화장실 부지를 조사해보고 싶다는 팀도 있었는데 교육을 받으시면서 본인들에게는 너무 복잡하다며 어렵게 포기하셨어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화전동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하나요?

화전동의 시골 같은 포근한 분위기는 좋지만,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문화기능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청년을 위한 시설도 전혀 없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생겨나고 화전동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